내·외현적 자기애, 자기통제 및 또래 비속어 사용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Covert, Overt Narcissism, Self-control and Peers' Vulgar Slang Use
on School Aged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석승림(Suk, Seung Rim)¹⁾

민하영(Min, Ha Yeoung)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overt narcissism, self-control, and peers' vulgar slang use and school aged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The subjects consisted of 263 boys and 256 girls in the 5th and 6th grade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1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chool aged boys' and girls' vulgar slang was found to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vert/overt narcissism. 2) School aged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wa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control. 3) School aged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ers' vulgar slang use 4) Among the variables of covert/overt narcissism, self-control, and peers' vulgar slang use, peers' vulgar slang use was the best predictor for school aged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Key Words :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 자기통제(self-control), 또래비속어 사용(peers' vulgar slang use), 비속어 사용(vulgar slang use).

* 본 논문은 2012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으로 2013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 Ha Yeoung,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712-702, Rep. of Korea
E-mail : hymin@cu.ac.kr

I. 문제제기

IT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언어적 폭력은 온라인 상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등 오프라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언어적 폭력은 온, 오프라인의 경계없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질만큼 일반적이며 보편적이다. 청소년의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은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대화 시 평균 20여절에 한번 꼴로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t al., 2011)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욕설 과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연 5회에 걸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2)하기로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언어적 폭력 현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기 아동의 언어적 폭력은 비속어 사용의 증가로 대변될 수 있다. 비속어란 비어와 속어를 합친 말이다.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 또는 상말(점잖지 못하고 상스러운 말)을 의미한다. 반면 비어는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또는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비속어란 실제로 지닌 값보다 낮게 평가하므로 사람을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낮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Heo, 2011). 이러한 비속어는 타인을 경멸하거나 비난, 비방, 조소, 야유, 조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속어에 대한 반복적 노출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 등 건장

한 인성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 연령화되어 가는 비속어 사용 및 비속어가 갖는 부정적 적응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조기에 지도하거나 관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을 지도하거나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기애와 자아통제 변인과 환경 외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또래의 비속어 사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으로 자기애적 변인을 고려한 것은 자기애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면서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방지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인성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비속어가 지니는 경멸, 비난, 야유, 조롱 등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임을 생각할 때 비속어 사용은 아동 자신의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비속어 사용을 자기애적 성향과 연관시켜 연구된 것은 없지만 자기애적 사람은 보다 공격적(Bushman & Baumeisters, 1998; Martinez, Zeichner, Reidy, & Miller, 2008; Papps & O'Carroll, 1998; Wink, 1991)이며 분노감 수준이 높고 언어적 공격행동과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Baek & Hyun, 2008; Bushman & Baumeisters, 1998; Cann & Biaggio, 1989; Ha, Petersen & Sharp, 2008) 되고 있다. 이는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비속어와 같은 언어적 공격을 보다 많이 사용할 것이라 예측케 한다. 자기애와 비속어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자기애적 성향이 내현적 자

기애와 외현적 자기에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Atlas & Them, 2008).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는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자기 환상이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경우다.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외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사람에 비해 보다 쉽게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수치심을 경험한다. 또한 외부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비판적인 평가나 반응에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더 쉽게 느낀다(Akhtar & Thomson, 1982). 반면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는 외부 사람들이 인식할만큼 거대 자기표상과 자기 과시적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웅대한 자기 지각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는 표현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거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착취적 행위를 보다 쉽게 하며(Kernberg, 1975),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갈망하는 경향이 크다(Baek & Hyun, 2008). 내·외현적 자기에와 관련하여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우울감이 높으며 불안정성과 불행감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반면(Park, Shin, & Lee, 2005; Rose, 2002; Wink, 1991), 외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다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Barry et al., 2007)도 있다. 이는 내·외현적 자기에가 인간의 행동특성 영역에 따라 영향력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이 내·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관련있는지 만약, 관련있다면 어떤 자기에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비속어 사용이 언어적 폭력임을 고려할 때 자기통제는 비속어 사용의 중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기통제(self-control)란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과 사고를 변화시키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Muraven & Baumeister, 2000), 즉시적이고 손쉬운 만족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포괄적 능력(Gottfredson & Hirschi, 1990)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자기통제 이론'에서 제안한 것처럼 청소년 범죄나 비행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 그렇다면 자기통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행동뿐 아니라 비속어 사용 등 사소한 사회적 문제행동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언어적 공격인 비속어 사용이 청소년의 충동성과 연결됨(So, 2011)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낮은 자기통제와 관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통제능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욕구에 둔감하고, 쉽게 화를 내는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Grasmick, Tittle, Bursick, & Arneklv, 1993; Kocanska & Aksan, 1995).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기통제력이 약한 아동은 또래와의 의사소통에서 타인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의 비속어를 사용하는데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자기에 또는 자기통제와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 외에 또래의 비속어 사용과 같은 외부 환경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처럼, 또래의 비속어 사용을 높이 지각할 때 아동 자신의 비속어 사

용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을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단순한 반응 또는 보복 행동으로 간주하기보다 또래 모방 또는 또래 동조에 기초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또래에 대한 동조 현상이 증가(Berndt, 1979; Chon, Lee, Yoo, & Lee, 2004)하기 시작함을 고려해 볼 때, 또래의 비속어 사용은 또래가 사용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 또래의 비속어 사용이 또래 모방이나 또래 동조 현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은 비속어 사용이 문제아나 불량 아동 등 학교 부적응 아동의 특별한 행동 특성이 아니라 평범한 아동에게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또래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또래 모방이나 동조 측면에서라도 또래와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내·외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그리고 외부 환경 변인인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것은 이러한 영향이 남아와 여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 차이없이 비속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아의 비속어 사용이 여아에 비해 보다 일반적임을 고려해 볼 때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다는 점(Kim, Lee, & Kim, 2011),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기통제가 높다는 점(Gibson, Ward, Wright, Beaver, & Delisi, 2010; Ki, 2011) 등은 성별에 따라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뿐 아니라 변인간 상대적 설명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학

령기 남녀아를 각각 독립 대상으로 구분하여,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자기통제 그리고 또래의 비속어 사용이 아동 자신의 비속어 사용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내·외현적 자기애는 비속어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통제는 비속어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또래 비속어 사용은 비속어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내·외현적 자기애, 자기통제 및 또래 비속어 사용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을 예방하거나 관리, 지도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유의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녀 아동 51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비속어 사용의 시기에 대한 응답으

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장 높은 것(Yang, Kang & Jo, 2010)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중 5학년 아동은 288명(55.5%), 6학년 아동은 231명(44.5%), 남아는 263명(50.7%), 여아는 256명(49.3%)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102명(19.7%), 40대가 392명(75.5%), 50대 이상이 25명(4.8%),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242명(46.67%), 40대가 272명(52.4%), 50대 이상이 5명(1.0%)로 나타났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120명(23.1%), 200~400만원 미만 가구는 218명(42.0%), 400만원 이상 가구는 181명(34.9%)로 나타났다. 어머니 중 211명(40.7%)는 전업주부이며 308명(59.3%)는 취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학령기 아동의 내·외현적 자기애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Gwak, Hong과 Han(2010)의 아동용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면 똑같이 해준다', '속는 것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욕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자주 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등의 1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외현적 자기애는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나는 앞장 서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나는 아이들이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더 높이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 등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내

현적 자기애는 .82 외현적 자기애는 .91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응답가능 범위는 13-52점이며 외현적 자기애의 응답가능 범위는 24-9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자기통제 척도(SCRS : Self-Control Rating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매일 일정하게 한다',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가져야 한다',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등의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응답가능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의 실태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Yang, et al.,(2010)에 의해 발표된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실태 및 순화대책과 청소년문화포럼에서 발표된 So(2011)의 청소년의 욕설사용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자기와 또래 비속어 사용 척도를 만들었다. Yang et al.,(2010)과 So(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발표된 비속어 중 상위 10개(씨발, 병신, 미친, 존나, 개새끼, 지랄, 꺼져, 닥쳐, 새끼, 쌍)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기 비속어 사용 10문항과 또래 비속어 사용 10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성

된 문항은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비속어 사용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쓰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일 사용한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총점 범위는 자기와 또래 각각 1-50점이며 응답 가능 점수가 높을수록 비속어 사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 비속어 사용 .93, 또래 비속어 사용 .95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9.0프로그램의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 상관표본에 의한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회귀분석,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4개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Table 1에서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Table 1에서와 같이 남이는 여

아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그리고 비속어 사용을 유의하게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 결과, 자기통제의 경우 남이는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또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남녀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Table 2에서, 비속어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비속어 사용과 또래의 비속어 사용을 상관표본에 의한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아동 모두 자신의 비속어 사용보다 또래의 비속어 사용을 보다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내·외현적 자기애가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남녀 아동의 내·외현적 자기애가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속어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내·외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계수,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를 알아보았다.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88,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14

(Table 1) The mean(SD) of covert/overt narcissism, self-control, peers' vulgar slang use and vulgar slang use in school aged boys and girls

Variables	Total mean(SD)	Male(n=263) Mean(SD)	Female(n=256) Mean(SD)	t
Covert narcissism	26.56(5.66)	27.05(5.89)	26.05(5.37)	2.03*
Overt narcissism	81.59(10.88)	83.02(11.03)	80.12(10.55)	3.06*
Self-control	114.27(16.57)	110.83(15.70)	117.80(16.72)	-4.91*
Peers' vulgar slang use	34.00(10.15)	33.95(10.21)	34.05(10.11)	-.11
Self vulgar slang use(10)	26.01(9.32)	27.26(9.43)	24.73(9.04)	3.13*

* $p < .05$.

〈Table 2〉 Paired t-test on cognition of self-peer vulgar slang use in boys and girls

Gender	Variable	Mean(SD)	Paired t
Boys	Self	27.26(9.43)	-11.5*
	Peer	33.94(10.26)	
Girls	Self	24.72(9.03)	-13.8*
	Peer	34.04(10.10)	

* $p < .05$.

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1.51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2).

한편 여아의 상관계수는 절대값 .13으로 나타났다으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97, 분산팽창계수 VIF값은 1.03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1.78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2). 이는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Table 3에서와 같이 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내·외현적 자기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남아의 경우 비속어 사용은 내현적 자기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beta = .27$,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내·외현적 변인이 비속어를 설명하는 부분은 7%($R^2 = .07$) 정도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이와 반대로 외현적 자기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beta = .41$,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내·외현적 변인이 비속어를 설명하는 부분은 18%($R^2 = .18$)로 남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with covert/overt narcissism

Gender	Variable	Vulgar slang use		R^2	$adjR^2$	F(df)
		B	β			
Boys	Constant	3.30(6.10)				
	Covert narcissism	.44(.10)	.27*	.07	.06	9.90* (2,260)
	Overt narcissism	.10(.05)	.17*			
Girls	Constant	-11.76(5.07)				
	Covert narcissism	.33(.10)	.20*	.18	.17	27.37* (2,253)
	Overt narcissism	.35(.05)	.41*			

* $p < .05$.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통제가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통제가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속어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자기통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Table 4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남아($\beta = -.38, p < .01$)와 여아($\beta = -.39, p < .01$) 모두 비속어 사용은 자기통제에 의해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비속어 사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또래 비속어 사용이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남녀 아동의 또래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속어 사용을 종속변

인으로, 또래 비속어 사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Table 5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또래 비속어 사용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남아($\beta = .54, p < .01$)와 여아($\beta = .37, p < .01$)의 비속어 사용은 모두 또래 비속어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비속어 사용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비속어 사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비속어 사용이 아동 자신의 비속어 사용을 설명하는 양은 남아($R^2 = .30$)가 여아($R^2 = .13$)에 비해 높았다.

4.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내·외현적 자기애, 자기통제 및 또래 비속어 사용의 상대적 영향력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내·외현적 자기애, 자기통제 및 또래 비속어 사용의

〈Table 4〉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of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with self-control

Gender	Variable	Vulgar slang use		R^2	adj R^2	F(df)
		B	β			
Boys	Constant	52.93(3.83)		.15	.14	45.60* (1,261)
	Self-control	-.23(.03)	-.38*			
Girls	Constant	49.77(3.70)		.16	.15	46.52* (1,254)
	Self-control	-.21(.03)	-.39*			

* $p < .05$.

〈Table 5〉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of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with peers' vulgar slang use

Gender	Variable	Vulgar slang use		R^2	adj R^2	F(df)
		B	β			
Boys	Constant	10.07(1.69)		.30	.30	111.97* (1,261)
	Peers' vulgar slang use	.50(.04)	.54*			
Girls	Constant	13.35(1.84)		.14	.14	41.17* (1,254)
	Peers' vulgar slang use	.33(.05)	.37*			

* $p < .05$.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비속어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내·외현적 자기에와 자기통제, 또래 비속어 사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및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계수,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를 알아보았다. Table 6에서 나타나듯이 남아의 상관계수는 절대값 최소 .06에서 최대 .36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66에서 .92의 범위에서, 그리

고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8-1.51 범위에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1.73으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2). 한편 여아의 상관계수는 절대값 최소 .01에서 최대 .47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52에서 .99의 범위에서, 그리고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1~1.60 범위에

〈Table 6〉 Correl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boys the diagonal below, girls the diagonal above)

Variable	Covert narcissism	Overt narcissism	Self-control	Peers' vulgar slang use
Covert narcissism	1	-.16*	-.47*	.01
Overt narcissism	-.35*	1	-.42*	-.01
Self-control	-.36*	-.17*	1	-.08
Peers' vulgar slang use	.27*	-.06	-.14*	1

* $p < .05$.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boys' and girls' vulgar slang use with covert/overt narcissism, self-control, peers' vulgar slang use

Gender	Variable	Vulgar slang use		R ²	adjR ²	F(df)
		B	β			
Boys	Constant	29.93(7.91)				
	Covert narcissism	-.04(.10)	-.02			
	Overt narcissism	.04(.05)	.04	.40	.39	42.95* (4, 258)
	Self-control	-.19(.03)	-.31*			
	Peers' vulgar slang use	.47(.05)	.51*			
Girls	Constant	1.29(10.11)				
	Covert narcissism	.14(.11)	.08			
	Overt narcissism	.27(.05)	.31*	.34	.33	31.90* (4, 251)
	Self-control	-.11(.04)	-.19*			
	Peers' vulgar slang use	.32(.05)	.36*			

* $p < .05$.

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 (D-W) 계수가 1.86으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2). 이는 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Table 7에서와 같이 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남아의 비속어 사용은 내·외현적 자기에, 자기통제, 또래비속어 사용 중 자기통제($\beta = -.31, p < .001$)와 또래 비속어 사용($\beta = .51, p < .001$)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비속어 사용은 남아와 달리 외현적 자기에($\beta = .31, p < .001$), 자기통제($\beta = -.19, p < .01$), 또래 비속어 사용($\beta = .36, p < .001$)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 중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은 또래 비속어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51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내·외현적 자기에, 자기통제, 또래 비속어 사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남녀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내·외현적 자기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남녀 아동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남아의 비속어 사용은 내·외현적 자기에 중 내현적 자기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었다. 반면 여아의 비속어 사용은 내·

외현적 자기에 중 외현적 자기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었다. 남녀아 모두 비속어 사용이 자기에 의해 정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은 자기에 적 성향이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고한 연구결과(Cann & Biaggio, 1989; Kim, 2010)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에 적 성향이 높은 아동이 보다 많은 비속어 사용과 관련있는 것은 아동의 비속어 사용이 아동의 인성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를 보다 특별하다고 느끼며 우월적 의식을 갖고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착취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향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경멸 또는 조롱하는 언어인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려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남녀아에 따라 자기에가 미치는 영향력뿐 아니라 자기에의 상대적 영향력도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자기에의 영향력은 7%로 미비한 것에 반해 여아의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자기에의 영향력은 18%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와 여아의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개인 내적 성향 중 자기에적 성격 특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아의 경우 미비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은 비속어 사용이 자기에와 같은 개인 내적 인성 특성에 의해 영향받는 경우가 상당히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남아의 경우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내·외현적 자기에의 영향력은 상당히 적지만 그 가운데서 내현적 자기에에는 외현적 자기에보다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 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여아의 경우 내현적 자기에보다 외현적 자기에가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현적 자기애가 차이를 보인 것은 남녀에 따라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가 서로 다를 수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기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남아의 경우 내·외현적 자기애가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남아보다 여아에게 초점을 두어 내·외현적 자기애의 상대적 영향력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아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보다 과장되게 지각하고 과도한 찬사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내재한 경우 남성 문화로 인식되어 오던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아 집단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동기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고 타인을 착취하려는 외현적 자기애적 특성(Son, Koh, & Hawan, 2010)을 토대로 보다 쉽게 비속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들에 비해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큼(Lee, Kim & Kim, 2010)에도 불구하고 남아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비속어 사용에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남성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상의 손상에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며,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내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 상 바람직하지 못한 남성적 특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남아는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을 방어하기 위해, 남성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비속어 사용에 보다 더 반응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비속어 사용은 자기통제와 부적 관계를 지닌다. 자기통제가 낮을 때, 보다 높은 정도의 비속어 사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보다 충동적이고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Kochanska & Aksan, 1995; Lee & Shin, 2011)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욕설 사용이 충동성과 연관 있다는 연구결과(So, 2011)를 지지하는 것이며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통제가 부족한 경우 비속어가 지니는 장기적 폐해의 위험성을 생각하기보다 일시적 충동이나 욕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 충동이나 즉각적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자기통제 강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비속어 사용은 또래 비속어 사용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의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또래 비속어 사용의 영향력은 30%로 여아의 비속어 사용에 미치는 또래 비속어 사용의 영향력 13%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령기 남아와 여아 모두 비속어 사용이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과 중학교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09)에서 초기 청소년의 비행이 친한 친구의 비행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5, 6학년 남녀아 모두 비속어 사용이 또래의 비속어 사용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이 시기가 또래 동조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또래 모방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 실질적으로 또래 동조성이 큰 집단의 청소년이 친한 친구의 비행에 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Kim, 2009)을 고려해 보면 또래 동조 현상이 발달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또래의 비속어 사용은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촉발하고 보편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가 특정 집단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비속어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자기통제 그리고 또래의 비속어 사용 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남아의 비속어 사용은 자기통제와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의해서 보다 더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비속어 사용은 외현적 자기에, 자기통제,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또래의 비속어 사용이 상대적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에의 설명력도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의 비속어 사용이 남아와는 달리 아동 자신의 자기에적 성격이 의미있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비속어 사용은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인 자기에나 자기통제와 같은 성격적 요인보다 또래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동조 행동이나 모방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은 또래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 관계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또래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유지하고자 한다. 소속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는 또래 동조다. 또래 동조는 집단의 행동에 추종하는 경향으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증가하다 중고등학교 이

후가 되면 감소(Berndt, 1979; Chon et al., 2004) 또는 유지(Oh, 1990)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속어인 욕설 사용에 대해 초, 중, 고생들이 '친구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So, 2011; Yang et al., 2010)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또래와의 소속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또래 동조의 현상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또래 동조는 또래 집단의 인정과 승인을 받고 또래 집단에 조화되기 위해,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나 부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또래 동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경우 집단에서 사용되는 비속어 사용에 동조함으로써 또래 간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유지하려는 것일 수 있다. 또래 동조 현상이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Oh, 1990)과 비속어 사용이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고 있는 점(So, 2011)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은 또래 동조나 모방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비속어 사용을 또래 동조와 연결시켜 살펴봄으로써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두 변인간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아의 비속어 사용 역시 또래 동조 현상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지만, 여아는 남아와 달리 우월감을 표현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외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비속어 사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아의 비속어 사용을 남아의 비속어 사용과 동일하지 않은 메카니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남아와 여아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변인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비속어 사용에 내·외현적 자기애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자기통제와 또래 비속어 사용이 통제되는 Table 7에서는 내·외현적 자기애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내·외현적 자기애가 비속어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면밀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변인간 인과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 62-76.
- Baek, S. H., & Hyun, M. H. (2008). Hos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in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1001-1017.
- Barry T. D., Thompson, A., Barry, C. T., Lochman, J. E., Adler, K., & Hill, K. (2007). The importance of narcissism in predict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moderately to highly aggressive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33, 185-197.
- Berndt, T. J. (1979). Development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 *Development Psychology*, 15(6), 608-616.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ann, J.,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Chon, J. Y., Lee, E. K., Yoo, N. H., & Lee, K.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nformity in group bully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1), 23-35.
- Gibson, C. L., Ward, J. T., Wright, J. P., Beaver, K. M., & Delisi, M. (2010). Where does gender fit in the measurement of self-contro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883-903.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Tittle, C., Bursick, R., & Arneklev, B.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6), 1036-1041.
- Gwak, P. H., Hong, S. H., & Han, T. H. (2010).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narcissism scale for children. *The Korea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3), 333-352.

- Ha, C. Petersen, N. J., & Sharp, C. (2008). Narcissism, self-esteem, and peer problems : Implications for conduct problems in a community sample of 7-11 year old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7(7), 406-413.
- Heo, J. Y. (2011).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factors of vulgar Language as a contemptuous appraisal expression. *Kyungpook Eomunhakhoi*, 55, 111-134.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 Aronson.
- Ki, K. D. (2011). An empirical study on gender gap : with the self-control theory. *Korea Criminological Review*, 22(2), 5-30.
- Kim, H. H. (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monitoring and best friend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adolescents peer conformity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7), 127-147.
- Kim, H. J.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and aggression for people with narcissistic tend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Y., Lee, E. J., & Kim, B. J. (2011). The relation among narcissistic personmality, depressior and psychopathy :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1), 97-113.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1), 236-254.
- Lee, E. J., Kim, Y. Y., & Kim B. J. (2010)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psychopathy :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3), 447-468.
- Lee, S. B., & Shin, Y. L. (2011). Effects of child, day care, and home variables on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9), 111-120.
- Martinez, M. A., Zeichner, A., Reidy, D. E., & Miller, J. D. (2008).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 Effects of positive, negative, and delayed feedba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40-149.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1). *Realities of language use by youth and provisions to make it healthier*.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 Does self-control resemble at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26, 247-259.
- Oh, K. H. (1990). A study on the peer conformity

- development of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Park, S. R., Shin, M. S., & Lee, H. J. (2005). Self-evaluation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overt, covert narcissis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255-266.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o, J. H. (2011). The analysis of the impulse and self-concept and the frequency of adolescent's usage of slang. *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26, 91-112.
- Son, A. R., Koh, E. K., & Hwan, S. T. (2010). Temperament and empathy on the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subjects in youth group.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3), 391-404.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2). Is youth language, problem or culture? : A series of debates on the improvement of the language culture of adolescents. Seoul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Yang, B. H. (2002).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 Hak Ji Sa.
- Yang, M. H., Kang, H. S., & Jo, S. A. (2010). *Abusive usage and purify measures in school*. Seoul :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2년 8월 28일 투고, 2012년 11월 25일 수정
2012년 12월 7일 채택